

문화재청 공고 제2017-34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9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4.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9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245판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木板)	13판	대한불교조계종 세심사
3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111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4	계초심학인문 목판(誠初心學人文 木板)	8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5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道家論辨牟子理惑論 木板)	4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6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尚六道普說 木板)	6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7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木板)	26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8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木板)	5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9	오대진언 목판(五大眞言 木板)	9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 수 량 : 245판
- 규 격 : 광곽 23.3×33.5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1년(명종 16)
- 사 유

묘법연화경 목판은 갑인자본계 『묘법연화경』을 1561년(명종 16)에 전라도 장흥지 지제산 천관사에서 번각한 것이다. 총246판 중 권3의 15-16장에 해당 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245판이 해남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대체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갑인자본계열 『묘법연화경』은 황해도 자비령사(1493년), 충청도 무량사(1493년), 경상도 신흥사(1545년) 등지에서 간행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흥사 묘법연화경 목판이 유일본이자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전래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木板)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 명 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세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 수 량 : 13판
- 규 격 : 광곽 18.2×29.2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3년(명종 18)

○ 사 유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은 1545년에 오응성(吳應星)이 언해한 판본을 모본(母本)으로 판각한 것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한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과 멸죄를 설명한 불경으로 『부모은중경』, 『은중경』이라고도 한다. 세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목판은 언해본으로 총13판이 전하고 있다. 1563년(명종 18) 동림산(桐林山) 신심사(神心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오응성의 발문은 없으나, 현존하는 언해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중 제작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언해본 경전의 판각 현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111판
- 규 격 : 광곽 18.9×27.8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65년(명종 20)
- 사 유

묘법연화경 목판은 1443년 성달생이 정서하여 새긴 고산 화암사판을 바탕으로 1565년 충청도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복각(復刻)한 것이다. 권미에 있는 혜능(慧能)의 발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112판중에서 41~44장에 해당되는 1판이 결판되어 서산 개심사에는 111판이 소장되어 있다. 판목의 울퉁불퉁한 표면의 결을 그대로 살려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강하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성달성계 묘법연화경 목판 중 강화 전등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과 더불어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판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 계초심학인문 목판(誠初心學人文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계초심학인문 목판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8판
- 규 격 : 광곽 15.4×23.3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 사 유

계초심학인문 목판은 1584년(선조 17)에 가야산 개심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계초심학인문』은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1205년에 저술한 책으로 불교수행의 초보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8판으로 결판 없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으며, 한 면에 2장씩 판각되어 총32장이 새겨져 있다. 충해나 균열 등이 없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1603년 간행된 하동 쌍계사 소장본(능인암 판각본)보다 10년이 앞서 제작된 것으로, 현존 『계초심학인문』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목판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道家論辨牟子理惑論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4판
- 규 격 : 광곽 16.6×22.6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0년(선조 13)
- 사 유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은 중국 한(漢)나라 사람으로 전하는 모자(牟子)가 당시 사람들이 불교에 가지고 있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쓴 글로, 일반적으로 『모자리혹론(牟子理惑論)』 혹은 『리혹론(理惑論)』로 불린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은 1580년(선조 13)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된 것으로, 총5판 중에서 제1장 등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4판이 개심사에 전하고 있다. 조선시대 동안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은 목판으로 간행된 사례가 매우 희소하며, 그 중 개심사 판본이 현존 유일본이자 가장 오래된 목판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尚六道普說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6판
- 규 격 : 광곽 18.9×28.1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 사 유

『몽산화상육도보설』은 원(元)의 선승인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불가의 육도윤회(六道輪廻)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책으로,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은 1584년(선조 17) 현 소장처인 개심사에서 개판한 것으로 완전한 구성을 갖춘 6판이 전해지고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16세기 가장 활발히 간행되어 현재 20여종의 판본이 전하는데, 진안 용출사 현암본(1497) 계통의 해서체 13자본이 가장 많으며, 개심사본은 행서체의 15자본인 일월사본(1432), 자비령사본(1490), 대광사본(1509) 계통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중 가장 완전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26판
- 규 격 : 광곽 20.3×35.4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577년(선조 10)
- 사 유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1577년(선조 10) 충청도 서산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26판이 소장되어 있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의식인 예수재(豫修齋)에 대한 의식집이다. 개심사 소장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여러 가지 의식문을 합철하여 새긴 것으로, 본문 42장과 「예수천왕통의」, 「소청사자소」 등과 함께 총 26판에 55장이 전해진다. 구성과 행자수가 동일한 안동 광흥사간본(1576년)과 비교해 보면 「예수문」 31장이 유실되었으며, 42장에 시주질을 비롯한 간행 기록이 새겨져 있다.

원래의 목재 형상을 목판으로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수량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5판
- 규 격 : 광곽 15.7×22.1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21년(광해 13)
- 사 유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은 불가에서 육자진언(六字眞言)으로 선정을 닦는 공덕을 담은 책인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것으로, 1621년(광해 1) 충청도 덕산(德山) 상왕산(象王山) 가야사(伽倻寺)에서 개관해서 현재 개심사에 전래되고 있다. 한 면에 2장씩 판각하여 1판에 모두 4장이 새겨진 형태로 총 5판에 19장이 새겨져 있다. 마지막 제16장에 새겨진 간기(刊記)를 통해 발원문과 더불어 목판이 판각된 시기와 판각처, 불사를 시주한 김국남(金國男) 등 6명의 속인(俗人)과 판각을 담당할 각수 경은(敬崧)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 오대진언 목판(五大眞言 木板)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오대진언 목판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 수 량 : 9판
- 규 격 : 광곽 17.5×25.4cm
- 재 질 : 나무
- 제작연대 : 1604년(선조 37)
- 사 유

오대진언 목판은 1604년(선조 37)에 가야산 강당사(講堂寺)에서 간행된 것

이다. 1619년 한여현(韓汝賢)이 지은 서산군 읍지류인 『호산록(湖山錄)』에 보원사가 강당사로 불린다는 기록이 있어 강당사는 보원사의 또다른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오대진언은 1485년(성종 16)에 「사십이수진언(四十二手眞言)」,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 다라니 다섯 종류를 묶어 범자(梵字)를 적고 한자와 한글로 음역을 달아 처음 간행되었다. 이로 인해 범자와 한글의 용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개심사 소장 목판은 오대진언 중에서 「수구즉득다라니」 부분만을 판각한 것으로 9판(28장)이 완전하게 전래되고 있으며, 현존 오대진언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판본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묘법연화경 목판



사진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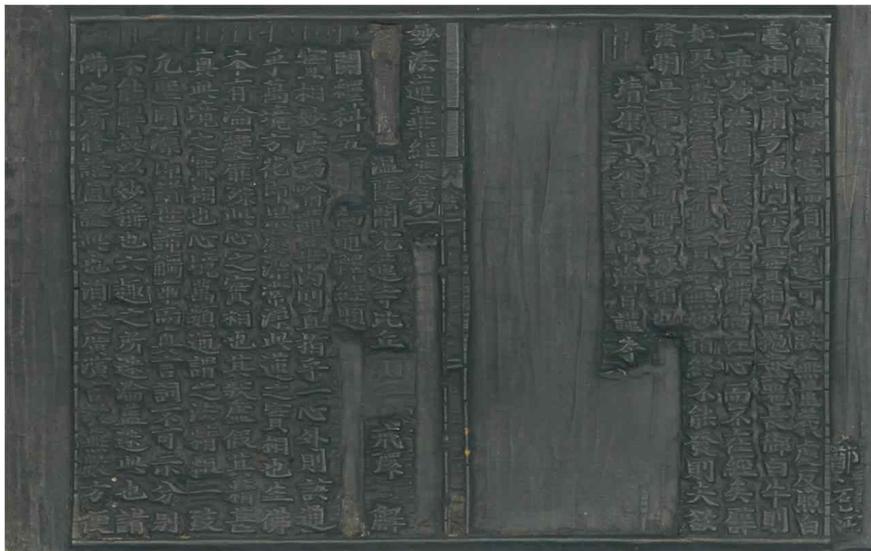


사진3 묘법연화경 목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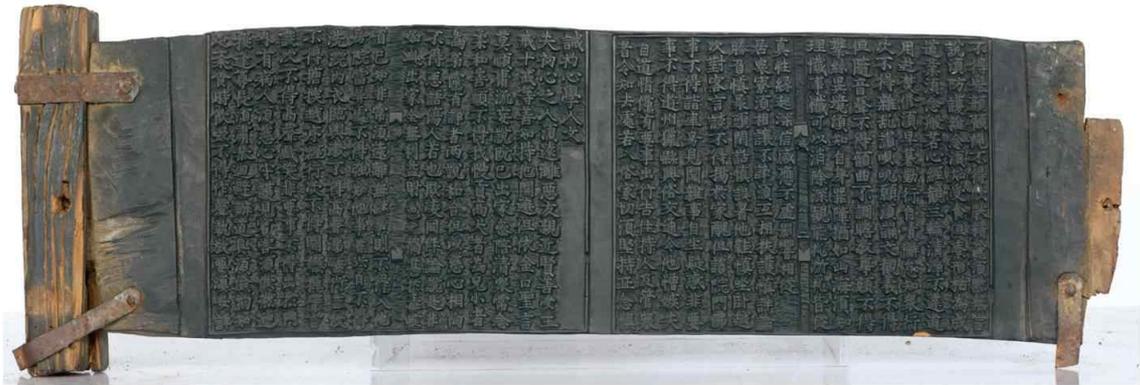


사진4 계초심학인문 목판



사진5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사진6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사진7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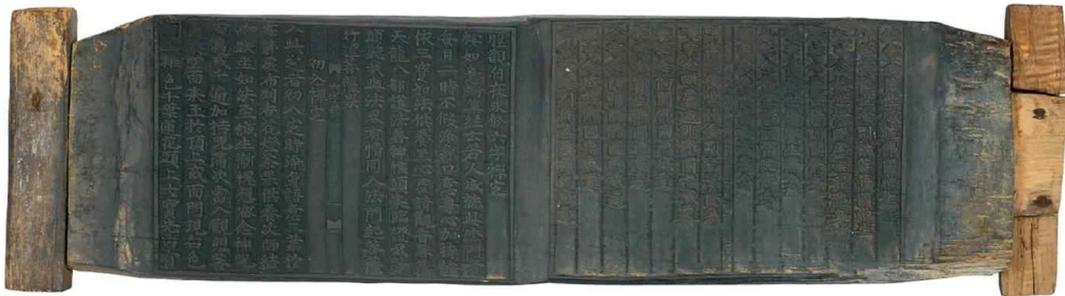


사진8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사진9 오대진언 목판